

도쿄 '어벤저스' LPGA 슝라이트 클래식 출격

내달 1일부터 사흘간 우승 경쟁
박인비·김세영·고진영·김효주
브룩 헨더슨·렉시 토프슨 상대

올해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에 함께 나선던 '어벤저스' 4총사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슝라이트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에 출전한다.

올해 도쿄올림픽에 한국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박인비(33), 김세영(28), 고진영(26), 김효주(26)는 모두 세계적인 톱 랭커들로 '어벤저스'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어벤저스'는 아이언맨,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등 영웅들이 총출동하는 영화 제목에서 따온 별명이다.

김효주는 당시 도쿄 현지에서 "팬 여러분들

이 '어벤저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또 달달해보이고 싶은 마음에 달콤한 '주소'를 더해 '어벤저스'라고 팀 이름을 정했다"고 '어벤저스'가 '어벤저스'로 바뀐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어벤저스'가 모두 출전하는 슝라이트 클래식은 10월 1일(한국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뉴저지주 갈러웨이의 돌체 호텔 시뉴 베이 코스(파71·6,190야드)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도쿄올림픽 이후 당시 대표 선수 4명이 모두 출전하는 첫 대회다.

고진영이 올림픽 이후 1달 반 정도 대회에 나오지 않다가 20일 끝난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 출전했고, 그 대회에 박인비, 김세영, 김효주는 불참했다.

도 27일 막을 내린 웰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는 고진영과 김세영만 나섰다.

'어벤저스'라는 단어가 '복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어벤저'(avenger)의 복수형인

만큼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던 이 들로서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도쿄올림픽의 아쉬움을 털어낼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 흐름도 좋은 편이다. 고진영은 올림픽 후 처음 출전한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우승했고, 지난주 아칸소 챔피언십도 공동 6위로 마쳤다.

김효주는 19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 이셔널에서 우승한 뒤 미국으로 건너갔다.

박인비는 올림픽 이후 영국에서 열린 AIG 여자오픈, 국내 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 나갔고, 미국 대회로는 이번이 올림픽 후 첫 출전이다.

지난주 아칸소 챔피언십 공동 56위로 주춧했던 김세영은 올해 첫 우승에 도전한다.

최근 슬럼프 탈출 분위기를 타는 박성현(28)과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지은희(35) 등도 출전한다.



도쿄올림픽 한국여자프로골프대표팀 '어벤저스' 선수들이 티샷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인비, 고진영, 김효주, 김세영. /연합뉴스

브룩 헨더슨(캐나다), 렉시 토프슨(미국), 리는 하타오카 나사(일본) 등이 '어벤저스'의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한국인 최초로 미국프로골프 챔피언스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코리안 탱크' 최경주가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스포티즌 제공·연합뉴스

최경주 "바쁘다 바빠" '인비테이셔널' 준비

'탱크' 최경주(51)가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자마자 귀국 길에 올라 이번 주엔 대회 '주최자'와 '선수'로 국내 필드를 누빈다.

30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여주의 페럼클럽(파72·7,217야드)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은 최경주가 주최하는 대회다.

최경주는 지난해엔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 처음으로 불참했다가 2년 만에 돌아온다.

지난해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PGA 챔피언스투어에 데뷔해 적응하던 최경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당시 필수였던 2주 자가격리에 부담감을 느껴 부득이 자리를 비웠다.

올해도 최경주는 챔피언스투어에 출전 중이지만, 입국 뒤 코로나19 검사 등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2주의 격리는 없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 자신의 대회에 돌아오게 됐다. 특히 올해는 최경주가 챔피언스투어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직후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이 열려 의미가 남다르다.

28일 '금의환향'한 최경주는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최경주는 최근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 2019년 대회 때 공동 3위에 오른 바 있다.

2라운드에서 이글 2개를 포함해 7언더파를 몰아치는 등 예리한 샷을 앞세워 견제함을 뽐냈는데, 챔피언스투어에서 좋은 감각을 이어온 가운데 나서는 올해 대회에선 어떤 활약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최경주 없는 최경주 대회'에서 7년 만에 코리아 투어 승수를 추가한 이창우(28)는 이번엔 주최자 최경주가 보는 앞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잔류왕' 인천 올 시즌 파이널A 뺄까

울산·전북·대구 확정
서울·광주 파이널B로



K리그1의 '잔류왕' 인천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엔 일찌감치 잔류를 확정하고 파이널A(1~6위)에서 뺄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다.

하나원큐 K리그1 2021 32라운드 종료 기준 12개 팀 중 8위(승점 37)를 기록 중인 인천은 파이널A 진출의 마지막 선인 6위 진입에 도전한다.

올 시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구단들의 일부 경기 일정이 연기되면서 인천은 33라운드까지 치르는 정규라운드 중 3경기를 남겨둔 상태다.

6위 확보를 위한 중상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인천은 남은 세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

야 한다. 인천은 매 시즌 하위권에서 고전하며 강등 위기를 맞다가 시즌 막바지에 놀라운 뒷심을 발휘해 가까스로 1부 리그에 남아 왔고, 이로 인해 '잔류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팀이다.

K리그1에 2012년 스피릿 시스템이 도입된 뒤로 인천이 상위 그룹에 속해 파이널 라운드를 치른 건 14개 팀이 경쟁하던 2013년뿐이다. 이후로는 매년 7~12위가 묶인 하위권 그룹에서 강등권 탈출을 위해 발버둥을 쳤다.

하지만 올 시즌은 사뭇 다르다. 시즌 초반인 4월 10~12위를 맴돌았으나 이후 점차 순위를 올려 5월 중순부터는 8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8월 말에는 잠시나마 4위까지도 순위를 끌어올렸다.

최근 5경기에서는 1부 4패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남은 수원 삼성, 강원 FC, 포항 스틸러스전 결과에 따라 8년 만에 파이널A 진출을 이룰 가능성이 남아 있다.

수원은 현재 6위(승점 39·38득점), 포항은 7위(승점 39·32득점)로 역시 파이널A 티켓을 놓고 다투는 팀들인데, 승점 차가 크지 않아 맞대결에서 승점 3을 따낸다면 인천이 순위를 뒤집을 수 있다.

수원이 최근 12경기에서 1승(3무 8패)을 거뒀고, 포항도 최근 3연패로 주춧한 만큼 '넘을 수 없는 벽'도 아니다.

다만 파이널A에 남은 자리는 단 세 자리, 진입 가능성이 있는 팀은 7개로 구단 간 경쟁은 훨씬 치열해질 전망이다.

변함없이 '양강 구도'를 구축한 선두 울산 현대(승점 61)와 2위 전북 현대(승점 60)가 이미 파이널A 진출을 확정했고, 3위 대구 FC(승점 48)도 한자리를 꿰찼다.

31경기씩 치른 세 팀은 6위 수원과 승점 차이가 7 이상으로 벌어져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상위 그룹에서 파이널 라운드 5경기를 치른다.

반면 현재 10위에 있는 FC서울(승점 33)과 광주 FC(승점 29)는 파이널B에서 강등권 탈출을 놓고 싸우게 됐다.

서울은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6을 더해 승점 39가 된다고 해도 6위에 들 수 없다.

5위인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40)는 넘을 수 없고, 수원-인천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둘 중 한 팀은 승점 40 이상을 쌓아 서울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달 초까지 꼴찌에서 허덕이던 서울은 박진섭 감독 사퇴 후 안익수 감독이 부임한 뒤 2승 2무로 분위기가 반전에 나섰으나, 구단 최초로 2년 연속 하위 그룹에 머물게 됐다.

이로써 파이널A 진출 가능성이 있는 팀은 총 7개 팀이다.

이중 시즌 초반 최하위에 그쳤던 '승격팀' 수원 FC(승점 45)가 4위까지 상승, 파이널A 행이 가장 유력하다. 남은 두 경기에서 1무 이상만 거두면 자력으로 진출한다.

본격적으로 파이널A의 남은 자리를 두고 싸우는 건 5~8위에 자리한 제주와 수원, 포항, 인천이다. 제주와 인천의 승점 차는 3에 불과해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연합뉴스



어딜 차는거야 크리스털 팰리스의 코너 골키퍼(왼쪽)가 28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브라이언 앤드 호브 앨버턴의 마크 쿠쿠엘라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양팀은 1-1로 비겼다. /로이터·연합뉴스

벤투호, 시리아·이란전 장소 확정

5년 만에 '아자디 공략'

한국 축구가 5년 만에 난공불락의 이란 축구 성지 '아자디 스타디움' 공략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는 10월 A매치 기간 치러질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3, 4차전 일시와 장소를 28일 발표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내달 7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3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이어 이란으로 건너가 12월 밤 10시 30분

(한국시간)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강적' 이란과 4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란 원정은 월드컵 본선으로 향하는 길에서 최대 고비라 할 만하다.

한국은 이란과 역대 전적에서 9승 9무 13패로 확연하게 밀린다.

극성스럽게 악명높은 이란 축구팬들의 응원 소리가 예전보다 작을 것이라는 점은 벤투호에 다행이다. 아자디 스타디움은 최대 10만여 명이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홈 관중이 1만 명만 입장한다. /연합뉴스

12월 여자핸드볼 세계선수권 덴마크 등과 F조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올해 12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유럽의 강호 덴마크와 조별리그에서 만나게 됐다.

올해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는 32개 나라가 출전하며 8개 조로 나뉘어 한 조에 4개국씩 조별리그를 벌인다.

우리나라는 F조에 편성돼 덴마크, 튀니지, 콩고와 조별리그를 치른다.

덴마크는 올해 도쿄올림픽 본선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유럽선수권대회 4위에 오른 강호다. 특히 2004년 아테네올림

픽 결승에서는 우리나라와 승부 던지기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우승했다.

튀니지는 올해 6월 아프리카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앙골라와 연장전 끝에 패한 팀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앙골라와 31-31로 비겼다. 콩고는 올해 아프리카선수권에서 앙골라, 튀니지에 모두 5골 차로 졌다.

각 조 3위가 결선리그에 진출하는데 F조의 우리나라는 조 3위 안에 들 경우 E조에서 올라 팀들과 결선리그를 벌인다. E조는 독일,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모두 유럽 국가들로 편성됐다. /연합뉴스